

## 한국어 유감

최돈우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경위

언어에도 계급이 있다? 언어에 무슨 계급이 있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은연중에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는 말과 문자로 표현되는데 조선 시대 양반들은 평민들이 문자를 깨쳐 지식 얻는 것을 경계하여 글을 배우지 못하게 했다. 양반들은 문자를 독점하여 권력과 부를 누렸으며, 특히 역관이란 직함을 가진 자들은 외국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그들만의 특권을 누리며 큰 부와 명예를 쌓기도 했다. 지금도 높은 학문을 닦은 사람들일수록 그들만의 특정한 언어를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인들도 이를 흉내 내어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쭙은 말들을 사용하며 은근히 층을 만들고 경계를 지으려 한다. 남들과 다른 말을 쓰면 우월감에 젖게 되고 상스럽고 저급한 말을 쓰는 사람들과는 당연히 거리를 두게 마련이다. 사회적 계급은 언어에도 층을 만들어 보이지 않는 언어 계급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한자가 많이 섞여 있어,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자 학습까지 병행해야 했으므로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한자를 모르면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말도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리 탐탁지는 않은 일이다. 한자투성이 책을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또다시 강요하는 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다지 반가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따져 보면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 문자인 한글을 먼저 배운 뒤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 문자를 배우는 것이 순서가 아니던가?

한자가 사라지고 난 뒤 한글이 겨우 자리를 잡는가 싶더니 어느샌가 그 자리를 영어 알파벳이 슬그머니 비집고 들어왔다.

가히 영어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곳곳에 영어가 난무한다. 영어가 뒤섞인 말이나 책은 한자와 마찬가지로 의미 전달이 잘되지 않고 가독성이 떨어진다. 과거에는 한자 때문에 고생했다면 지금은 영어 때문에 고생이다. 조기 영어 교육과 영어에 편중된 학교 교육은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을 배울 기회를 줄여 지식 결핍증에 걸리게 했고, 대학에선 영어 강의와 원서 해독으로 학생이나 교수 모두가 영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직장에서도 자리 보전이나 승진을 위해 영어 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영어 배우기에 머리가 빠질 지경이다. 필요해서 영어를 배우고 쓰는 건 이해하지만, 모든 능력을 영어 실력 하나로 평가하고, 업무나 생활에 별로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반강제로 영어를 쓰고 배우게 하는 건 분명 문제다.

드라마에선 연기자들이 대사에 아무렇지도 않게 외국어를 섞어 쓰고, 우리말은 되레 자막으로 표시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방송에서는 외국어가 섞이지 않은 말이 없을 지경이다. 외국에서 유학하거나 외국어가 유창한 연예인들을 우대하는 풍조가 일고, 문화 예술 영역에서는 외국어를 갖다 붙이지 않으면 격이라도 떨어지는지 서로 경쟁하듯 외국어 빌려 쓰기에 열

을 올리고 있다. 우리말보다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사회 분위기는, 은연중에 외국어는 고급 언어고 우리말은 스스로 저급한 언어라고 여기는 의식 전략을 불러일으켰다. 특이한 것은 방송에 나오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한국말을 더 잘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은 굳이 모국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어를 즐겨 쓴다. 우리말 대신 외국어를 섞어 쓰는 습성은 반대로 우리말의 어휘 능력을 떨어트리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급기야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과거 식민지 시절에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했다면, 지금은 스스로 우리말과 우리글을 버리고 남의 말글을 앞다퉈 쓰니 통탄할 일이다. 우리말과 우리글을 망가트리는 데에는 누가 먼저랄 게 없다. 정부 기관부터 학자, 문화가, 언론, 학교에 이르기까지 누가 누구를 탓하거나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말과 우리글 파괴 정도는 지나치다 못해 도를 넘었다. 파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건설을 위한 파괴가 아니다. 준말이나 신조어는 발전적 영향을 미칠 때도 있다. 하지만 뜻 모를 외래어, 우리말과 외국어가 뒤섞인 잡탕말, 외국인도 못 알아듣는 콩글리시 등은 문제다.

한 나라 언어가 영원히 계속 사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토록 찬란했던 문화를 일으켰던 수많은 나라들이 망했고, 그 나라들은 그들의 언어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다. 말과 글은 쓰지 않으면 퇴보하며, 민족은 언어와 함께 생존한다. 고유 언어를 잃어버린 민족은 민족 정체성이나 뿌리를 잃게 된다. 예컨대 만주족은 만주어를 잃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민족이 되어 버린 것과 같다. 지금도 지구상에서 제 나라 글을 가진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유엔(UN)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국가 284개국 가운데 자신만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28개국뿐이라

고 한다. 왜 우리는 어렵게 창제되고 문자 우수성이 증명된 우리글을 스스로 버리려 하는가? 《훈민정음》 서문을 보면, 세종계선 백성들이 배우고자 하여도 글을 몰라 깨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배워 쓰고 학문을 익힐 수 있는 글자를 친히 만드셨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임금이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훈민정음》 서문에는 백성을 향한 통치자의 애민 정신이 깊이 스며 있으며 백성들의 인권 증진과 주권 회복 등 복합적인 문자 창제 목표와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전 세계 문자 가운데 임금이 백성을 위해 직접 문자를 만들고 문자를 만든 원리와 사용법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하게 하여, 백성에게 보급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사실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데에는 식민지 시대 영향도 무시하지 못한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무려 70여 개 국가를 지배했고, 200여 개가 넘는 지역을 다스리며 그들의 언어를 퍼뜨렸다. 그 결과 일부 식민지에서는 자국 문자를 버리고 지배국 문자로 바꿔 쓰는 나라도 생겼다. 아일랜드는 약 400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49년 완전히 독립하면서 아일랜드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지만, 많은 지식인이 자신들의 문학어와 학문어로 영어를 선택하는 바람에 자국어는 거의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뒤늦게 자국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아일랜드어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미 영어 사용 풍토가 뿌리 깊게 박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오랜 식민 통치를 받았던 필리핀은 독립 후에도 자국어로 교육할 문법과 교육 자료가 없어 결국 영어로 교육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자국어로 교육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고 말았다. 식민지를 가진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언어를 쓰도록 식민지에 강요하여, 식민지의 자국어를 쇠퇴·소멸시켰다. 식민지에 대한 언어 말살 정책은 전 세계 식민국의 공통된 정책이었다.

1871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이 끝나고 독일은 프랑스로부터 알자스와 로렌 지방을 넘겨받으면서 이 지방에서는 프랑스어를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했다.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에는 이 지방의 한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프랑스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남의 노예 신세가 되더라도 자기 말과 글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나라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말도 남의 나라말을 써야 한다는 것에 울분을 토하며 진즉에 갖지 못했던 나라말에 대한 자긍심과 애뜻함을 상기시켜 주는 내용이다. 그로부터 사십여 년 후,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면서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삼십여 년 식민 지배로 인해 광복 이후에도 우리말은 일본어 영향을 받아 많은 단어가 일본어로 대체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일본어 투 용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써 왔다. 다행히 학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심한 일본어 투 용어는 대부분 우리말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말에는 일본어에 동화된 용어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뜻 모를 외계어, 콩글리시, 합성어, 준말 등,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말들은 언어 체계 전체를 뒤흔들어 정상적인 문법 체계를 파괴하고, 점점 우리말은 외국어로 뒤죽박죽 얼룩진, 그야말로 잡탕말이 되어 가고 있다. 아무리 언어에 창조성이 있다고 해도 어딘가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불편한 진실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기엔 웬지 서글픈 생각이 든다. 한편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대한 물결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다. 우리말의 중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막상 우리말 지키기와 살리기에는 관심이 적다. 말광(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외국어가 일상생활 속에 많이 쓰이고 새로이 생겨나는 말들을 우리말로 순화하기도 벅차다. 물론 모든 말을 다 우리말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어가 쓰기에 편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무분별하게 허용하고 받아들이다가는 언젠가 우리말보다 그런 말들이 더 많아져서 아예 다른 나라 말처럼 되어 버릴까 염려스럽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예전에 ‘인터체인지’라고 하던 것을 이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들목’이라고 한다. ‘리플’도 ‘댓글’로 바꾸어 부르고 ‘틀게이트’도 ‘요금소’로 부른다. 또한 인터넷 강국으로 들어서던 초기에는 외국어를 그대로 썼지만, 지금은 ‘누리망(인터넷)’이나 ‘누리꾼(인터넷 사용자)’ 등 순화어로 쉽고 편리하게 쓰고 있다. 이처럼 우리말도 가꾸고 다듬기에 따라 얼마든지 외국어를 대체할 수 있다.

반면에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말을 좀먹는 외국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외국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처음 보는 낯선 신조어, 뜻도 모른 채 습관적으로 쓰는 외국어, 외국인도 못 알아듣는 잘못된 외국어 표현,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정체불명의 이상한 표현들이 널려 있다.

‘골든 타임’은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식 영어다. 올바른 영어로 표현하자면 ‘골든 아워’, ‘프라이م 타임’이라고 해야 맞다. 우리말로 ‘황금 시간’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엉터리 표현을 쓸 이유가 있을까? 한 방송인이 유행시킨 ‘엄청난, 대단한’이라는 뜻의 ‘그웨잇(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는 ‘그레이트’), ‘어리석은, 바보 같은, 멍청한’이라는 뜻의 ‘스투핏(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는 ‘스투피드’)은 한때 온 국민 유행어가 되었다. ‘발레 파킹(대리 주차)’은 ‘시중’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발레)와 ‘주차’를 뜻하는 영어(파킹)가 합쳐진 말이다. 등산 용어로서 ‘산중 노숙, 한뼘잠’을 뜻하는 ‘비박은 우리말 같지만 실은 독일어 ‘비박’에서 왔다. ‘땅꺼짐, 함몰 구멍’을 뜻하는 ‘싱크홀’은 우리말이 더 쉽게 이해되는 데도 굳이 영어를 쓴다. ‘협연, 협업, 합작’이라는 뜻으로 쓰는 ‘콜라보(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

는 ‘컬래버’)라는 단어는 원래 영어 본딧말로 ‘컬래버레이션’이고 이를 줄여 쓸 땐 ‘컬랩’이라고 해야 하지만 콩글리시로 잘못 쓰이고 있다. 그밖에도 ‘퀵서비스(신속 배달, 총알 배송)’, ‘런칭(출시, 개시, 신규 발매)’, ‘핏(맞다, 적합하다, 맞추다, 어울림, 옷맵시)’ 등 우리말을 잠식한 외래어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복잡한 외래어 간판 이름이나 아파트 이름으로 인해 경찰, 소방, 택배, 우체부 등 여러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혼각을 다루는 긴박한 경우에는 장소 파악에 시간 낭비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립국어원에서 규정한 공공언어는 좁은 의미로는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키고, 넓은 의미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띠고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공공언어는 거의 모든 일상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공공언어가 가지는 특성상 뜻을 말과 글로 전달할 때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공언어는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운 말, 쉬운 말, 편한 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써야 한다. 언어 소통의 벽이 생기는 것은 언어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2010년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효과 분석’이란 국립국어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민 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 서식에 어려운 용어로 인해 드는 일반 국민의 시간 비용은 118.3억 원, 민원 처리 공무원의 시간 비용은 51.8억 원으로 나타났고, 행정 서식 용어 개선 정책 추진 결과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는, 정책 추진 완성도를 30%로 예측할 때, 총비용 절감액이 약 3,431.1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이 수치가 보여 주는 것은 공공언어만 바로 써도 그만큼 많은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제1항을 보면, 공공 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밝히고 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거의 무용지물이다. 정부 기관마다 ‘국어책임관’을 두고 있지만, 정작 본인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허울뿐인 것이 현실이다. 지적 감성은 높아졌으나 언어 표현 능력과 알맞은 우리말 활용 능력은 쇠퇴했다. 인문학만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말 교육도 강조해야 한다. 다행히 국립국어원에서 ‘공공언어 바로쓰기’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배우기엔 기회가 턱없이 모자란다. 이 교육을 모든 공공 기관의 필수 교육 과목으로 지정해서 운영해야 한다. 법규를 만들어서라도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국어 교육을 전 생애적인 평생교육 과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여 온 국민이 국어와 한글을 제대로 알고 쓰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운 언어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등학교 교육이라 해도 현실성 없는, 기껏해야 입시를 위한 문제 풀이 교육이 전부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제대로 된 한국어교육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남북 교류가 확대될 경우 남북 언어 이질성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처럼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좀 더 잘 화합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생애 전 과정에 걸쳐 개개인이 꾸준히 힘써야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도 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극찬하였듯이 한글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돋보이는 뛰어난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살펴보면, 한글이 제대로 빛을 본 건 불과 50년도 안 된다.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하였으나 한자의 그늘



에 가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말과 글을 천시하거나 일본의 압제 아래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해 무수한 세월에 묻혀 있다가 한글 반포 이후 약 560년이 흐른 2005년에야 겨우 「국어기본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꾸준히 우리 문자를 쓰고 우리말을 빛내 왔더라면 지금쯤 아마도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고도 남았을 터이다. 실례로, 2007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한국어가 국제특허협력조약의 국제 공개어(국제 특허출원 공개에 사용되는 언어)로 채택될 만큼 국제 사회에서 한국어 위상이 높아졌다.

최근 들어 한국어로 유학을 오는 외국 학생, 그리고 노동자들이 수십만 명이고 ‘한류’라는 이름으로 한국 문화가 나라 밖으로 뻗어 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문화는 언어가 지배한다. 따라서 한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건 한국어와 한글이다. 13억이라는 세계 1위의 인구수를 자랑하며 한국과 무역 규모나 관광 교류에서 미국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선두에 올라선 중국은 한국어를 그들의 국가 5대 언어에 포함시켰다. 2백만 조선족과 인접국인 북한, 한국과의 각종 교류를 고려할 때 결코 한국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막혔던 대화 물꼬가 트이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훈풍이 불고 있다. 앞으로 대화가 잘 진척될 경우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몽골 등의 국가와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유라시아 대륙 횡단 철도를 통해 유럽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아시아권에 속한 러시아어, 중국어, 몽골어가 상대적으로 떠오르면서 덩달아 한글 사용 가치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2018년 5월 기준 세종학당이 57개국에 174개소가 설립되어 있고,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만 해도 약 200여 개국에 2천여 개소가 운영 중이다. 외국으로 나간 한국인 재외 동포 수는 180여 개국에 약 740만여 명인데, 이는 대한민국 인구(약 5,160만)의 10분의 1이 넘고 이런 전체 인구 대비 재외동포 비율은, 단일 국가로는 세계 1위에 해당한다. 만약 이들이 세계